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 이웃에 와 있는 난민과 선교적 교회 -

- 지용주 (시라큐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

지난 2007년 북한에서 온 난민 6명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난민으로 들어온 이들의 통역을 도우면서 우리는 시라큐스가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의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와 있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곳, “미국이 선교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이방인으로 왔던 롯처럼 정치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이 바로 우리 이웃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롯을 돌보고 구속의 역사 안으로 인도했던 보아스처럼 이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아즈 프로젝트 (The Boaz Project)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간 40여개국에서 온 1600여명의 난민 친구들과 이주민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는 동안 그들 모두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걸음씩 한걸음씩 그들이 속했던 이슬람교에서, 힌두교에서, 불교에서 일어나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선교를 위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조직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이루어가야 할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를 회복해가야 합니다.

1. 선교적 교회의 의미와 정체성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라는 말은 인도의 선교사이자 영국 선교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선교신학에 영향을 받은 북미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The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를 형성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선교를 위해 무엇인가를 새롭게 조직하고 준비하고 특별히 이루어가야 할 프로그램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 자체는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히 이루어가야 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이를 자각하고 본질과 본 목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경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18-23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하며, 이 본질이 우리의 교회의 나아갈 바가 되어야 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각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교회의 여러 사역 중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교회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개개인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2.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즉 믿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 지역사회와 친밀한 사랑과 섬김의 관계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교회와 가정이 위치한 지역 사회와 학교 등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중요한 선교의 현장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라큐스(Syracuse)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대학도시입니다. 시라큐스 대학 (Syracuse University)을 중심으로 아시안 이민자 9,000여명, 세계 50여개국에서 온 약 4200여명의 유학생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온 난민들의 정착지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유엔난민기구(UNHCR)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구촌 난민은 8240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난민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근에는 세계 인구 (약 78억 명) 100명 중 1명 이상은 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FFY2021) 미국에 들어온 난민 수는 11,814명으로 이 중 900여명이 뉴욕 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월 중순까지 약 1300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뉴욕 주에 정착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시라큐스가 속한 Onondaga county에서 받아들인 난민 수는 약 10,000명으로 시라큐스 도시 인구의 약 9-10% 정도입니다.

뉴욕주에 위치한 시라큐스는 미국에 들어온 난민들이 정착하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한 곳으로써 수단,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우크라이나, 쿠바, 버마, 콩고, 부룬디, 캄보디아, 브라자빌, 르완다,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베트남, 중국, 부탄, 아르메니아, 시리아 등지에서 온 난민들이 거주 중입니다. 버마, 부탄, 소말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Refugees in Onondaga County: Where are they from? When did they arrive?" by Peter Allen and Michelle Breidenbach on <http://www.syracuse.com>). 난민들은 부푼 꿈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땅, 미국에 들어오지만, 그 중 대부분의 난민들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또다른 사회적, 경제적

난민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난민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10-40 window" 지역에서 온 난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된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복음 전파는 어느 한 나라, 족속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을 향해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열방에서 온 민족들이 우리 이웃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찾아 그 나라로 가서 만나야 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미 우리 이웃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바로 열방에서 온 그 민족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선교지"입니다.

그렇게 만난 난민들에게 우리 교회는 컴퓨터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봄학기, 가을학기에는 10주과정으로 컴퓨터 수업과 영어수업을 실시합니다. 첫번째 학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창 1:1), 두번째 학기에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요 3:16)를 주제로 하여 수업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통해 컴퓨터를 가르치며, 말씀을 통해 영어를 가르칩니다. 컴퓨터와 영어 수업 외에도 개강예배, 종강예배를 통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식사 시간, 피크닉, Clothing Drive 시간을 통해 친구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는 난민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의 Lodi street로 직접 나아가 그곳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성경학교, "Lodi Summer Camp"를 실시합니다. '글없는 책'(Wordless Book)을 주 교재로 하여 Bible Class, Art class, Game class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 그리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5일 동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초청 시간을 갖습니다. 해마다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그 중 100여명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Luis Bush) 목사님이 설명한 4/14 window 개념처럼 4-14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대위임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어린이 Junior staff들이 난민 친구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Them to Them"의 선교전략은 그 민족이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간에도 이루어지는 선교전략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한 주니어 스텝은 여러 명의 난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두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본인에게 감동이 일어나 울기 위해 간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나오니 문 앞에 함께 복음을 듣던 그 아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로다이 캠프를 할 때마다 함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바라본 것입니다(마 21:16).

이렇듯 이 사역은 온 교회 교인들이 여러 방법으로 함께 섬기며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천안문 사태로 인해 정치적 망명을 하면서 지난 2007년 난민으로 시라큐스에 온 Zhou 형제는 영어도 한국말도 못해 서로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시라큐스 한인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청년부에 중국어를 공부한 자매가 있어서 번역을 통해 설교의 내용을 읽고, 성경공부에 참석하고, 마침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중국인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는 Zhou 형제의 신학교 학업을 지원했고, 졸업 후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자신은 중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왔는데, 이제는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싸워가겠다고 고백하며, 십수년간 가족도 만나지 못한채 외로이 그러나 곳곳하게 맨하탄에서 중국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민족이 그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훈련하고 세워가는 것, 이 역시 앞서 설명했던 "Them to them"의 선교 전략입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 그는 우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어디를 가든 자신은 시라큐스 한인교회 교인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전해진 사랑이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였고, 이제 그 사명자로 살아가며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는 난민 교회들과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졌습니다. 찌우 선교사를 통해 중국인 사랑의 교회가 자매 교회가 되었고, Lodi Summer Camp를 통해 African Free Methodist Church, Syracuse Myanmar Baptist Church, Cornerstone Christian Church, El Shaddai Ethiopian Evangelical Church, 그리고 The Syracuse Chin Christian Church (Myanmar)와 같은 난민 교회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웃 교회들과도 동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900년대 중반부터 버팔로, 로체스터, 알바니, 유틀카, 시라큐스 등 뉴욕 업스테이트(upstate) 지역의 산업들이 쇠락해가면서 이 지역의 인구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사회 경제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난민들을 수용하여 그들에게 주택과 일자리, 그리고 영어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들이 지역 사회 경제 및 산업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펼쳐갔고, 따라서 이 지역에 많은 난민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 있는 열방, 난민을 향한 비전을 이웃 교회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씀 사역을 함께 해오던 Ithaca 지역의 코넬한인교회가 Lodi Summer Camp 사역에 동참하였고, 지난 2017년에는 그 교회가 난민이 거주하는 또다른 지역, 유틀카 (Utica)로 직접 나아가 그곳의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Summer Camp를 펼쳤습니다. 이를 통해 Utica에 거주하고 있던 미얀마 카렌족을 비롯한 여러 난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지역 교회와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감격 가운데 우리는 함께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선교적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역이 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7년 우리 교회 난민 사역에 대해 듣게 된 Syracuse University의 Falk College of Sport and Human Dynamics의 요청에 따라 보아즈 프로젝트는 시라큐스 대학 학생들의 공식적인 Internship Program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시라큐스 대학 학생들은 우리 교회의 난민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Internship program을 수행하고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난민에 관한 연구 자료를 공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며, 실제로 난민들과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습 시간을 채우고나면 중간 및 기말 평가를 받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할 경우 학교를 통해 정식 학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난민들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이 땅에 온 난민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선교적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도직인 선교적 의무가 교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개개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 등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감으로써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교인들도 이렇게 교회를 통해 시작된 난민 사역, 선교를 통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건축가로 일을 하다가 이곳 시라큐스로 이주를 해온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는 의류매장 관리자로 일을 하던 중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난민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난민들의 실생활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난민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난민들과 그들의 주거 지역 개선을 위한 기업, **"Building the Bridge USA"**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Building The Bridge USA는 시라큐스에 온 난민들이 주거 공간 뿐 아니라 상업공간 및 공공 공간 등 거주하는 공간들에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그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회복과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Beauty supplies 일을 해오셨던 한 장로님은 미국에 체류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 과정 중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셨고, 가족들과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점차 생활이 안정적이 되어가던 중 교회를 통해 선포된 성경공부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던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난민 사역을 통해 난민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던 중,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 **"The Helping Hand"**를 시작했습니다. The Helping Hand는 청소용역 회사로써, 언어의 장벽과 숙련된 기술이 부족한 난민들에게 청소를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나눌 수 있도록 세워진 기업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골프를 접고, 주중에는 매일 난민들이 살고 있는 거리로 나가 그 거리를 청소하시는 연세가 80이 다되신 교우님이 계십니다. 연세드신 내외분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거창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며, 매일 매일 그 거리로 나가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워 깨끗해진 곳에는 쓰레기를 다시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최선을 다해 실천해가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난민 사역의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부모가,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며, 난민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가치를 심어줌으로써 그들의 삶과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 (꿈동이 도서관: Little Dreamer's Library)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 그곳에 꿈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한 공간을 설립하고, 그 공간을 통해 그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신앙 프로그램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돌봄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 그래서 어렵고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맺는 말

우리는 흔히 선교는 부름받은 특별한 누군가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루어가야 할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이웃에 "난민"이라는 열방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열방에서 온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에서 온 이들이 이웃에 와 있는 이곳,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난민들은 소외되고 연약한 이 땅의 나그네, 이방인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밋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 14:29)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난민을 정치 사회적 관점으로 보아서 안 됩니다. 선교적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난민들이 불쌍하고 어려워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열방, 땅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만나야 할 그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인 이 미국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한인 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바로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와 있는 열방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도 선교적 삶을 통해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